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상담 일화

글쓰기 상담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주제를 잡지 못했거나, 개요를 짜지 못했거나, 혹은 주제를 잡고 개요를 짜고 글을 썼는데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글쓰기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방문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해 막막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인 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쓴 글의 요건을 꼽으라면 저는 ‘읽는 재미’를 주는 글을 꼽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저에게 읽는 재미를 주는 글은 참신한 내용을 잘 쓴 문장과 좋은 구조에 담아낸 글입니다.

잘 쓴 문장이 무어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잘 쓰는 것은 별 게 아닙니다. 문장의 필수성분을 잘 갖추고 성분 간의 호응이 잘 되었는지 보고 또 보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참신한 내용 또한 별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나라는 존재가 유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품은 생각 또한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참신한 내용은 그러니까 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누군가 이전에 말했더라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는 말하지 않은, 말하자면 내 머리에서 나온 생생한 내 ‘육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글을 읽으면서 학생 개인의 민낯이 보일 때, 즉 글쓴이의 육성이 느껴질 때 신이 나서 글을 읽어 내려가곤 합니다. 민낯을 보이는 것, 육성을 들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나 소재에 대해 내 생각과 느낌을 나름의 방식대로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적으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인 글쓰기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 글쓰기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 • •
 서여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에 선정된 한 학생이 저와 첫 대면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내려간 것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수업의 과제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후의 느낌을 자유롭게 써서 제출했더니 교수님이나 강의조교 선생님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당연히 안 될 리 없지요. 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은 블로그나 개인 공간에 적어보세요.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글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 아주 즉흥적으로 두 예문을 적어 봅니다.

(A) 강동원은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배우이다. 그의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을 꼽으라면 나는 당연히 2014년에 개봉했던 〈군도: 민란의 시대〉를 들고 싶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주 지역의 대부호 조윤으로 분한 강동원은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그는 악당이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리는 장면이 많은데 나는 그보다 가늘고 긴 눈 한가운데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까만 눈망울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아무리 해도 도포의 품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 그의 가녀린 몸이 만들어 내는 너울과 선의 아름다움은 이 영화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최상의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영화는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의 독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관객은 주인공인 군도(群盜)들이 아닌 악당에게 심히 공감했기 때문이다.

(B) 2014년 개봉작인 〈군도: 민란의 시대〉는 배우 강동원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주 지역의 대부호 조윤으로 분한 강동원은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가녀린 몸을 품은 도포를 너울거리며 활극을 벌이는 장면들은 관객에게 최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강동원의 바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영화는 ‘뭉치면 백성, 흩어지면 도둑’이라는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고 만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주인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적대자는 이야기의 구조가 더욱 명쾌해지도록 해준다.¹⁾ 이러한 주인공과 적대

1) 린다 카우길, 이문원 역, 『시나리오 구조의 비밀』, 시공사, 2003, pp.32~33. 안상혁, 「안타고니스트의 양상과 특성 연구」, 『CONTENTS PLUS』, 제8권 No.3, 2010.12., p.84.에서 재인용.

자의 구조가 균형을 유지할 때 영화의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군도>의 경우 이러한 균형은 깨지고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고 만다. 그 원인은 단적으로 화면을 차지하는 비중이나 빈도의 측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절반은 군도의 이야기로, 그 나머지는 적대관계인 강동원의 이야기로 채워진 영화 안에서 군도는 여러 주인공이 절반의 시간을 나누어 쓰게 되지만, 강동원은 오롯이 그 시간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거라”는 조윤의 명대사는 서자의 설움을 벗기 위해, 아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년기를 버리고 고군분투한 강동원에게 관객들이 오히려 동정심을 품게 만든다.

두 예문 모두 강동원이 아름답기 때문에 <군도 : 민란의 시대>가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같은 요지의 두 글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 (A)는 그야말로 영화를 보고 든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입니다. 이에 비하면 예문 (B)는 자신이 느낀 바를 좀 더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를 인용하기도 하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둘 중 학술적 글쓰기에 가까운 것은 예문 (B)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글쓰기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펼치되 그것을 입증하거나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를 내리거나, 부연 설명을 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다른 대상과 비교·대조하거나, 위의 예문 (B)에서처럼 해당 분야의 권위자 혹은 이전의 연구를 검토하거나, 이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돋기 위해 친근한 대상과 주제를 끌어다 즉흥적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더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될 테니 처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제나 소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품는 대신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다소 빈약하더라도 근거를 들어 그것을 펼쳐 놓으세요. 정련(精鍊)은 글쓴이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민낯이 보이는, 육성이 들리는 학술적 글쓰기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